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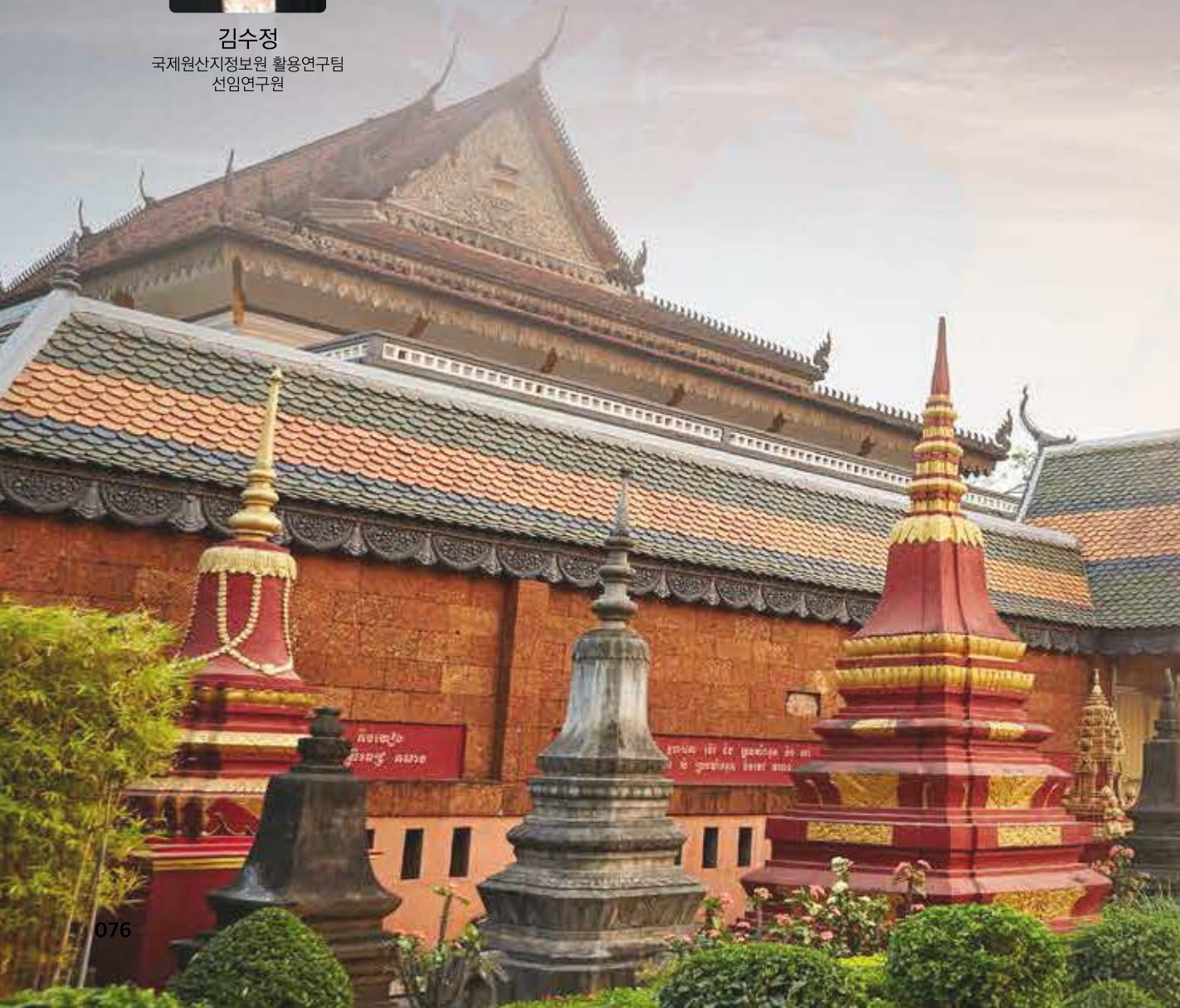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황정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팀장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와 FTA의 발효가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는 영어 명칭인 캄보디아에서 유래한다. 이 명칭의 직접적인 연원은 캄보디아의 프랑스어 명칭인 캄보주이며, 산스크리트어로 캄보디아를 설명하는 캄보자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캄보디아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갖춘 나라이며, 농업이 캄보디아 내에서 발달한 산업이다. 캄보디아 내 농업 종사 인구 비중은 전체 노동인구의 30% 이상인 약 3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캄보디아 내 건설 및 부동산 개발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및 관광 분야 역시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력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 고용, 공평, 효율이란 사각 전략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 전략마다 4개의 하부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2004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4기 사각 전략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의 4기 사각 전략의 전략적 목표는 연간 7%의 경제성장률 유지, 고용 확대와 빈곤율 10% 이하로 축소, 공공기관의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이며,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기업 및 일자리 육성, 포용적·지속적 발전을 전제로 두고 있다.

2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동향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실적은 '21년 기준 624백만불이며, '13년부터 지속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로의

수출은 '20년과 '16년, '15년을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로의 수입은 '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였다.

[표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현황(2013년~2021년)

[단위: 백만불, %]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	증감률	615,093	증감률	
2021	624	10.0	342	7.4	282
2020	567	-18.6	318	-5.3	249
2019	697	5.5	336	6.8	361
2018	660	9.4	314	20.3	346
2017	604	5.4	261	9.0	343
2016	573	-12.2	240	10.7	333
2015	653	-0.3	217	11.6	436
2014	654	6.5	194	42.3	460
2013	615	3.6	136	7.9	479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아세안국의 수출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국가 중 수출 기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21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의 수출 비중은 1% 미만의 미약한 수준으로 확인 된다.

[표 2] 우리나라와 아세안국의 교역현황(2020년~2021년)

[단위: 백만불, %]

순 번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		수입		수입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89,017	54,830	108,826	100.0	67,705	100.0	24
1	베트남	48,511	20,579	56,729	52.1	23,966	35.4	17
2	싱가포르	9,828	8,438	14,149	13.0	10,691	15.8	27
3	말레이시아	9,078	8,893	10,107	9.3	10,456	15.4	18
4	필리핀	7,126	3,086	9,659	8.9	3,894	5.8	26
5	인도네시아	6,313	7,595	8,550	7.9	10,725	15.8	41
6	태국	6,853	5,197	8,524	7.8	7,015	10.4	35
7	캄보디아	567	318	624	0.6	342	0.5	7
8	미얀마	609	466	368	0.3	446	0.7	-4
9	라오스	50	44	71	0.1	49	0.1	11
10	브루나이	82	215	46	0.0	123	0.2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21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산업별 교역현황(MTI 1단위 기준)은 우리나라 수출 강세 품목인 섬유류(24%), 기계류(20.8%), 농림수산물(16.5%), 화학공업제품(15.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9.5%) 순으로 수출실적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1년 기준 수입은 섬유류(49.7%), 생활용품(24.6%), 전자전기제품(12.3%),

농림수산물(6.7%), 철강금속제품(3.2%)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산업별 교역현황(2020년~2021년)

[단위: 백만불, %]

순 번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		수입		수입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567	318	624	100.0	342	100.0	7.4
1	섬유류	136	172	150	24.0	170	49.7	-1.4
2	기계류	131	5	130	20.8	6	1.8	34.4
3	농림수산물	95	12	103	16.5	23	6.7	89.4
4	화학공업제품	49	0	98	15.7	0	0.0	-18.1
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1	2	59	9.5	1	0.3	-27.8
6	전자전기제품	39	46	37	5.9	42	12.3	-9.4
7	철강금속제품	58	4	24	3.8	11	3.2	178.4
8	생활용품	14	76	18	2.9	84	24.6	10.6
9	광산물	2	0	3	0.5	3	0.9	4,170.7
10	잡제품	2	1	1	0.2	1	0.3	-12.3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기준

2)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1년 對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제2202.10호(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제4107.92호(그레인 스플릿), 제3002.15호(면역물품)이며,

제3002.15호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감률이 2,224.4%로 급증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 내 최근 3~4년간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의약품의 수입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면역 물품에 대한 캄보디아 내의 수출이 급증한 것은 이러한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2020년~2021년)

[단위: 천불,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67,210	-18.6	623,848	10.0
1	농림수산물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72,101	-12.3	70,753	-1.9
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26,275	-22.1	41,180	56.7
3	화학공업제품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643	390.3	38,197	2,224.4
4	기계류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0,891	-26.0	30,920	0.1
5	섬유류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8,559	-14.5	30,299	6.1
6	섬유류	600622	염색한 것	17,707	-14.2	23,968	35.4
7	섬유류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32,804	-22.8	19,765	-39.7
8	화학공업제품	330499	기타	14,103	13.2	17,744	25.8
9	섬유류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7,612	-48.0	15,367	101.9
10	철강금속제품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6,677	33.0	13,116	-71.9
11	기계류	870899	기타	8,213	-3.0	11,371	38.4
12	기계류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13,777	-11.3	10,340	-24.9
13	기계류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상 초과 2,500cc 이하인 것	5,161	-76.0	9,657	87.1
14	화학공업제품	300490	기타	10,286	3.7	8,573	-16.6
15	전자전기제품	854449	기타	9,464	9.2	8,299	-12.3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우리나라의 '21년 캄보디아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7.4%로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면으로 만든 것(제6110.20호), 신발류의 기타 품목(제6404.19호), 스모크드 시트¹⁾(제4001.21호)가 전년 대비 각각 40.3%, 135.2%, 1,991.8%가 증가한 바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수입품목(2020년~2021년)

[단위: 천불,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8,112	-5.3	341,516	7.4
1	전자전기제품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3,008	43.5	36,158	-15.9
2	생활용품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2,634	22.3	20,721	-8.5
3	섬유류	611020	면으로 만든 것	9,703	-28.5	13,610	40.3
4	생활용품	640419	기타	4,953	12.9	11,648	135.2
5	생활용품	640299	기타	3,791	2.4	11,054	191.5
6	섬유류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559	-7.5	10,387	58.4
7	섬유류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512	-20.1	9,689	48.8
8	철강금속제품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928	-65.2	9,648	145.6
9	농림수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377	-7.8	9,435	115.6
10	섬유류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1,822	3.6	9,343	-21.0
11	농림수산물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29	0.0	8,967	1,991.8
12	섬유류	610910	면으로 만든 것	9,295	-10.4	7,979	-14.2
13	생활용품	4202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276	-8.3	7,753	46.9
14	섬유류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02	-2.2	7,684	-36.0
15	섬유류	610342	면으로 만든 것	9,057	33.9	6,872	-24.1

자료: 한국무역협회

1) 훈연을 침투시킨 천연 고무시트로 천연 고무시트의 수송·보관 중에 시트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훈연처리한 것

3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한-캄보디아 FTA에서 공산품(임산물 포함)은 품목 수 기준 88.4%(7,966개), 수입액 기준 72.2%(4.1억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될 예정이다. 주요 개별품목 중 자동차는 캄보디아 수출이 높은 일부 화물자동차 및 중형자동차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은 스티어링 · 운전대(15%) 및 클러치(15%) 등에 대해서는 5년 철폐, 차축(15%) 및 판상 · 나선용 스프링(35%) 등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섬유, 기계, 전자제품 역시 관세가 연차별로 철폐되거나 순면직물(표백, 7%)의 경우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표 6] 한-캄보디아 관세철폐 수준[공산품(임산물 포함)]

구분	주요 내용
공산품(임산물 포함)	품목수 기준 88.4%(7,966개), 수입액 기준 72.2%(4.1억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자동차	對캄보디아 수출이 많은 일부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중형 승용차(35%)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
자동차부품	스티어링 · 운전대(15%) 및 클러치(15%) 등에 대해서는 5년 철폐, 차축(15%) 및 판상 · 나선용 스프링(35%) 등은 15년 철폐
섬유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편직물(7%) · 가죽(7%) 등은 15년 철폐했으며 순면직물(표백, 7%) 등은 즉시 철폐
기계	탬핑머신(15%) 10년 철폐, 굴착기(15%) 등 15년 철폐
전자제품	진공청소기(35%) 및 건조기(15%) 등 15년 철폐

자료: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40%의 선택기준이며, 섬유·의류는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제품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은 삭제하였다.

농수축산물은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 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 및 전기·전자에서는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4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기]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분야	주요내용	예시
석유·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선택기준	제27류, 제39류, 제40류
섬유·의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제50류-제60류 제61류-제63류
철강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제72류-제73류
자동차	전기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제87류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계(제84류) 전기·전자(제85류)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8류 등

자료: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4 캄보디아의 비관세 장벽

캄보디아는 국가 안전,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 국가의 수입 금지 품목은 우측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배터리, 페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또는 위조 상품²⁾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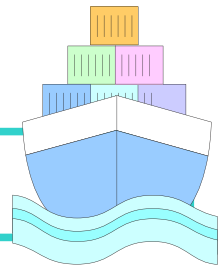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대부분 소비재 및 자본재가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 규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5 맺음말

캄보디아는 UN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지만, 지금은 아세안 국가 중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1년부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연령층이 25세 이하인 젊은 노동력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빨리 적응하며, 새로운 상품과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현지 자문 업체에서 캄보디아 소비자의 쇼핑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상품 구매 시 최적의 가격을 가진 상품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캄보디아 브랜드도 좋아하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



2) <https://customs.gov.kh/en/customs-procedures/394-prohibited-and-restricted-goods?ref=378>

“나비 효과”란 말이 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새로운 시장의 발굴과 신시장 개척은 우리나라 기업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엔진을 장착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한-캄보디아 FTA에 발맞춰 K-품목을 선정한 후 이러한 구매 세대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캄보디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17)
- 2022 캄보디아 진출전략(2021.12)
- 한-캄보디아 FTA 상세 설명자료(2021.10). 관계부처 합동
-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 제4기 사각 전략
- 캄보디아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주목하라(2022.06.22). 코트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70&pNttSn=195043)
- 아시아·대양주 2021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 캄보디아 통상 및 통관 환경. 코트라
- 나무위키 캄보디아 국가 검색(검색일:2022.07.26)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황정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팀장



한국-페루간 FTA 활용 및 관리 시스템 경험 공유 한국의 FTA 성공 경험 토대, 정책 제안을 통한 양국 협력 기대



▲ 국제원산지정보원 박병진 원장이 페루 리마(통상관광부)에서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페루 KSP 수행단)은 21/22 페루 경제개발 경험 공유사업(KSP)⁴⁾에 참여하여 「페루 원산지 증명·관세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국의 FTA 활용 지원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간의 FTA 활용 협력이 공고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21/22 페루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은 페루 중소기업의 FTA 활용 부진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의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족 등 이에 대한 우려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FTA 활용 제고 방법을 공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4) 21/22 페루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위탁사업으로 수행되었음

한국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찾아 볼수 없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FTA 활용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고, 중소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FTA-PASS를 개발 및 보급한 경험이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페루 무역 환경에 맞추어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었다.

21/22 페루 KSP 수행단은 ‘페루 원산지 증명·관세시스템 구축’을 대주제로 양자사업을 추진하여 페루의 생산이력을 추적하고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함으로써 페루의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원산지 증명·관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페루 현지 실정과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실질적 어려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사용자 편의에 입각한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국제원산지 정보원과 같은 FTA 전문 지원 기관에 대한 설립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로 페루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를 위해 페루가 벤치마킹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에 집중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책 제언을 제공 하였다.

이번 사업에서는 특히 페루 통상관광부 실무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주제별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의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판정 및 관리를 직접 경험하여 한국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FTA-PASS란?

FTA활용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국내 최고의 원산지관리시스템





▲ 정무경 수석고문, 조영준 주페루 대사, Ana Cecilia Gervasi 통상관광부 차관, Claudia Parra Silva 통상관광부 총괄국장이 고위정책대화 종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1/22 페루 KSP 수행단은 8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비롯한 사업평가와 후속사업 협의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정무경 수석고문을 비롯해, 방호경 전문위원(KDI PM), 박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PM), 김한성 아주대학교 교수(PI) 등 연구진이 페루를 방문하였다.

페루 통상관광부에서는 FTA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FTA 활용 증대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양국 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페루의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 도입에 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해 페루와 한국 간 MOU를 통해 향후 후속사업 추진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개발도상국인 페루의 수출증대의 의지와 무역
선진국인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이 하나가 되어
연구진의 노력과 페루 측의 적극적인 이해 및

수용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후속사업의 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페루 KSP 수행단과 페루 통상관광부 실무진 최종보고회 단체촬영

